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키톨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송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풀죽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아내가 났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사람들	0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재)	10 닥터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50 SBS12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55 안녕 우리말(재) 00 KBS 뉴스 12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생활의 발견(재)	
2	00 명견만리 (시간속 투표용지 착한 소비의 미래)(재) 55 안녕우리말(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 시청자 세상
3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시사기획 창(재) 55 트윈생활제조(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아쿠타가와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00 고향이 보인다 30 푸르기 탐구생활
5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구레피	00 비타민(재)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송년특집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2015 KBS 가요 대축제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내일의 삶)
8	20 한번 더 해피엔딩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5 SAF연예대상 1~2부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5 2015 MBC 연기대상 1~2부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숲터	30 송년기획 다큐멘터리 3일(재)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행 더 콘서트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세상의 모든 다큐	25 MBC 뉴스 24 35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12	50 특별기획 그들의 7일	50 동행		55 남도의 보물 100선 스페셜

꽃보다 청춘

“청춘남들 웃음 콤비 합체”

정우·강하늘·정상훈·조정석 아이슬란드서 끈끈한 우정 ... 내일 밤 9시 45분 첫 방송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뒷문이 열렸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오 썬더 도어(Open the door)!’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닫아야지 왜 열어요? ‘아, 내가 잘못 데려왔구나’했죠. (웃음) 원래는 오랜 노력 끝에 고난을 딛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30대의 모습을 그체려고 했는데 의미를 찾기도는 재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벨라스 호텔에서 열린 tvN ‘꽃보다 청춘-아이슬란드’의 제작발표회에 나온 나영석 PD는 ‘꽃보다’ 시리즈 8번째 작품인 이 프로그램이 전자과 어떻게 다르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에서 활약 중인 배우 정상훈, 조정석, 정우, 강하늘은 언뜻 연결고리가 없어보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랜 무명기간을 함께 지내온 동료.

조정석(35)과 정상훈(37)은 뮤지컬에서, 정우(34)와 조정석은 드라마에서 함께 연기했다. 정상훈과 정우는 영화에 같이 출연할 뻔 한 일을 계기로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눴고 강하늘(25)도 이들과 작품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이들은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온 만큼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누가 더 바보 같았나’는 질문엔 서로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피지엔 정마오” 정상훈은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될 살지, 이걸 언제 먹을까 2시간, 3시간씩 회의를 하곤 했다”며 “넷이 있으니 청춘이라

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너무나 즐거웠다. 가족에겐 미안하지만 가끔씩만 생각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여행에서 만형인 정상훈은 만형으로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며 ‘청춘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스마트폰 번역기 어플을 활용하며 ‘그나마 브레인’으로 불렀다는 조정석은 “2004년 데뷔하고 지금까지 ‘잘 쉬었다’고 말할 만큼 제대로 쉰 적이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여행은 정말 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듯한, 제 인생에 제대로 콤비를 짤 수 있는 여행이었다”며 뿌듯해하기도 했다.

뒤늦게 합류한 막내 강하늘은 그저 “행들과 여행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다”며 연신 웃어댔다.

정우는 외국인들에게 해맑게 ‘하이’라고 외치지만 영어 대신 한국어로 대꾸하는 ‘오지라퍼’(오지+러+er), 나영석 PD는 그를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백일섭 선생님을 섞어놓은 듯하다. 고집이 있다”고 평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나영석 PD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고보니 웃기기는 (‘꽃보다 시리즈’ 중) 최고로 웃기다”며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깔깔대며 편하게 웃으며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TV로 생중계됐다. 오는 1월 1일 오후 9시 45분 첫 방송.



사진 위쪽부터 배우 정우, 강하늘, 정상훈, 조정석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고수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포클랜드 절대비법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5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4
05:40 다문화 사랑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6:10 한국 음악 기행	11:10 다큐 오늘	15:40 포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이(재)	20:40 다큐 오늘
07:45 로보카 폴리	12:10 사선에서	16:45 당동명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	13:05 지식세네	17:30 꼬마버스 타요(재)	(미지의 열대를 만나, 보르네오)
08:10 한글이 야호2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7: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타-지구인 자격평가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	(제주도 실현)
08:30 두다다쿵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중 슈퍼왕스	21:50 EBS 다크 프라임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8:2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2	22:45 극한직업
08:45 방귀대장 뽕이	14:2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8:25 아웅영영 귀여워	23:35 장수의 비밀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8:4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3	24:10 한국영화특선 (김약국의 딸들)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일제개편>	12:10 5분과탐 - 생명과학 1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2:15 뉴 탑스런 <법과 정치>(재)
01:40 " <화물과 통계>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듣기>
02:30 " <기하와 벡터>	14:00 수능특강 <수학(나)형>(재)
03:20 " <수학II>	14:50 수능 길잡이 <국어-문학>(재)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 <기하와 벡터>	15:40 " <영어 독해-유형>(재)
	16:30 " <기하와 벡터>(재)
05:00 뉴탑스런 <화학>	17:20 2017 수능개념 <미적분>
06:00 " <지구과학>	18:10 " <미적분II>
06:50 " <세계지리>	19:10 뉴탑스런 <세계지리>(재)
07:40 " <법과 정치>	20:00 EBS스텝스 특강 <수학(나)형>
08:30 수능특강 <수학(나)형>	20:50 2017 수능개념 <국어-문학>(재)
09:20 수능 길잡이 <국어-문학>	21:40 " <유연주의 수능개념 TALK>
10:10 " <영어 독해-유형>	21:40 " <유연주의 수능개념 TALK>
11:00 " <기하와 벡터>	22:30 박범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08:30 검정고시 교양강좌	16:20 만명왕 <사회 5-2>
09:00 출제문 수확 EBS MATH	16:50 " <사회 6-2>
09:10 중학예비과정 <국어①②>	17:20 만명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5-2>
09:50 " <국어③④>	
10:30 " <국어⑤⑥>	17:50 다크 오늘
11:10 " <영어①>	18:00 중학예비과정 <수학②>
11:50 " <수학①>	18:40 " <영어③>
12:30 EBS 특강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13:10 등업산공 <사회 1>	20:00 EBS 기획특강
13:50 " <사회 2>	20:50 EBS 기획특강
14:30 " <역사 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5:10 여행!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22:00 등업산공 <역사 2>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22:40 " <과학 3(상)>

“첫 사극 도전 ... 운명같은 사랑 꿈꿔요”

고아라, 영화 ‘조선마술사’서 청명역 ... 오늘 개봉

“원래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 방송반에 가입해 연습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아나운서나 선생님이 될 꿈을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아라(25·사진)는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같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고아라는 오는 오늘 개봉하는 영화 ‘조선마술사’에서 진자 공주 대신 청나라 왕자에 시집을 가는 청명 역을 맡았다.

조선시대 의순공주에서 모티브를 따온 백역이다. 의순 공주는 1650년 청의 구혼 요청으로 조선 조정의 공주 대신 청나라로 시집을 간 김림군 이개운의 딸이었다. ‘대의’에 ‘순종’했음을 기리고자 ‘의순(義順)’이라고 불렀다.

고아라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여인의 모습과 군제대 후 첫 영화에 출연하는 유승호와의 풋풋한 사랑 연기를 동시에 소화해야 했다.

“의순 공주가 아픔이 많은 인물인 점을 고려하면서 풋풋한 사랑 연기를 해야 하는 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대상과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담을 떨치려고 했죠.”

첫 사극에 도전하는 점도 작지 않은 부담이었다. “어려웠어요. 영화가 판타지 멜로가 가미된 ‘퓨전 사극’의 느낌 이거든요. 정통 사극이면서도 사랑 이야기 위주예요. 정극 연기는 선배님들께 많이 의지했어요. 유승호 씨와의 사랑 연기는 굳이 사극 투에 엄매하지 않았고요.”

고아라는 2003년 성장드라마 ‘반올림’으로 데뷔해 큰 주목을 받았고, 2013년 성나정 역으로 분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응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응사’를 하고 달린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배우, 스태프와 시너지를 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힘을 길러준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자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고아라는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이다. 실제로 만난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기운이 넘쳤다. 그가 ‘조선마술사’에서 맡은 청명은 조선 시대에도 자유롭고 자기표현이 분명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고아라는 “실제 성격도 청명과 같은 면모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나 재밌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요. 호기심이 많아 수시로 사물을 관찰하면서 엉뚱하고 웃긴 상상도 많이 하고요. (웃음) ‘업기적인 그녀’처럼 재미있고 독특한 캐릭터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쾌활하면서도 다소 엉뚱해 보이는 성격. 고아라의 취미는 이런 성격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다름 아닌 시 읽기와 시 쓰기. 영상보다는 활자가 좋단다.

‘반올림’ 시절부터 작품을 할 때마다 모은 대본도 자주

들춰본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영상 매체와 가깝다 보니 활자를 영상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류시화 시인의 시를 처음 읽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죠. 제가 직접 시를 쓰기도 해요. 시가 배우 활동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일기에 적기 시작한 것도 꽤 오래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적은 시와 글을 엮어 책도 내고 보고 싶어요.”

스물다섯의 꽃다운 나이, 연애와 사랑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무엇보다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겠지요. 세계관과 가치관 교류도 할 수 있어야겠고...인연이 있겠지요? ‘조선마술사’의 청명처럼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음 11월 20일 庚辰)

子	48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하점을 받게 할 수다. 60년생 정해진 수순대로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72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84년생 생방의 의사가 합치되는 흐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 84
丑	49년생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61년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73년생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85년생 우선시 해줘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0
寅	38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5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62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74년생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다. 86년생 좀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3, 71
卯	39년생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나 지체하지 마라. 51년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3년생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75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87년생 현실적으로 조절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1, 05
辰	40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52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4년생 당해 사항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9, 52
巳	41년생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53년생 지난날의 은원은 말할 것도 없으니, 제반사를 차치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다. 65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77년생 본격하기 힘들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3, 17

午	42년생 손톱에 돛을 달고 진수하니 풍어를 기약하리라. 54년생 가까이 다가서야 하니라. 66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78년생 향후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41
未	43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남치며 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55년생 길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67년생 쌓였던 격정이 일기에 불은 녹듯 할 것이니라. 79년생 운치가 있을 것이니 똑똑히 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75
申	44년생 고니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6년생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68년생 걸여온 길을 뒤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리라. 80년생 지지부진했던 일이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57, 26
酉	45년생 부수적인 것은 미루고 당면 과제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좋다. 57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69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81년생 길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5, 94
戌	46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차신하여야 자연스럽다. 58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눈 딱 감고 있어야. 70년생 일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주변의 여건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6, 98
亥	47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니라. 59년생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좋다. 71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파해를 볼 수 있다. 83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31, 6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